넷우익을 통해 본 일본 우경화의 정치 동학

하종문

1. 들어가며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의 나지막한 외침은 점차 한일관계의 기저를 뒤흔드는 강렬한 의제로 바뀌었다. 역사 갈등은 식민지기를 뛰어넘어 전 시대로 번져갔으며,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충돌로까지 확대일로를 걸었다. 이런 시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1997년 1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출범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새역모'는 '반미'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고, 급기야 2006년 '일본교육재생기구'(이하

하종문(河棕文)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사로 전공을 바꿔 도쿄대학 일본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한신대학교 일본학과에서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박사논문 이래의 테마인 전시동원체제와 노동력정책을 비롯하여 천황제와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혹은 신민)에 관해 연구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역사교과서·독도와 같은 한일관계의 쟁점에 관해서도 글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256>

‘재생기구’)가 새롭게 닳을 올렸다.¹ 이하 이 글에서는 ‘새역모’와 ‘재생기구’를 합쳐 ‘교과서우익’이라 칭하기로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양국 간에는 역사 갈등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협력의 기운 또한 왕성해졌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에는 이른바 ‘한류’가 급속도로 퍼졌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에게는 걸끄러운 ‘위안부’ 등의 역사 쟁점과 친숙한 대중문화의 조화로운 수용이 쉽지 않았다. 교과서우익의 활동, 역사 갈등의 반복과 해결의 지지부진함은 ‘협한’(협중도 포함) 언설의 부상과 대유행으로 이어졌고, 이른바 ‘넷우익’은 인터넷과 SNS 등의 뉴미디어를 무대로 급속도로 세를 불려갔다. 그런 넷우익의 존재감은 많은 연구 성과가 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보면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은 김효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² 분석 대상이자 연구의 요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넷우익의 실체와 협한 논리를 규명하는 작업이 『협한류』(嫌韓流)와 같은 만화와 매스컴 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시도되었다.³ 넷우익의 대표 격으로 매스컴의 주목까지 받은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즉 ‘재특회’를 향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메스를 들이댔다.⁴ 마지막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염두에 두고 넷우익을 연계시켜

- 1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하중문(근간), 「일본의 ‘교과서우익’과 전쟁 피해의 전략적 활용: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정치권의 동향을 중심으로」를 참조할 수 있다.
- 2 김효진, 「기호(嗜好)로서의 협한(嫌韓) 협중(嫌中): 일본 넷우익(ネット右翼)과 내셔널리즘」, 『일본학연구』 33호, 2011. 일본의 연구 동향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주요 성과의 소개로 그치고자 한다. 辻大介, 「計量調査から見る「ネット右翼」のプロファイル: 2007年 / 2014年ウェブ調査の分析結果をもとに」, 『年報人間科学』 38, 2017; 田中彰, 「ネット右翼と保守論壇」, 『戦争責任研究』 87, 2016; 田中彰, 「ネット右翼と歴史修正主義」, 『戦争責任研究』 85, 2015; 山崎望 編, 『奇妙な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 排外主義に抗して』, 岩波書店, 2015; 古谷経衡, 『ネット右翼の終わり: ヘイトスピーチはなぜ無くならないのか』, 晶文社, 2015; 樋口直人, 「「行動する保守」の論理(7): 「ネット右翼のカリスマ」Z氏の場合」, 『茨城大学地域総合研究所年報』 46, 2013; 河村洋二, 「徳島県教組襲撃事件とネット右翼」在特会」, 『科学的社会主義』 161, 2011.
- 3 강기철, 「일본 만화에 나타난 역사 왜곡과 정치적 보수화 연구」, 『인문학논총』 29호, 2012; 황성민,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10호, 2014; 김효진, 「협한 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이린도(靑林堂)의 최근 출판물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6집, 2016.
- 4 이규수, 「일본 ‘재특회(在特會)’의 협한·배외주의」, 『일본학』 38호, 2014; 이승희, 「재일코리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우익 내부의 균열 양상: 『사피오(SAPIO)』의 ‘재특회(在特會)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

다른 연구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⁵

이상의 여러 연구를 통해 넷우익의 해부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지만, 남겨진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두 가지 점이 지적 가능하며, 이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넷우익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부진하다. 재특회를 제외하면 넷우익 집단 혹은 개인의 활동이 일본의 정치·사회 및 한일관계와 구체적으로 어떤 접점을 가져왔는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넷우익 담론의 ‘가시화’가 “기존의 사회조직에 의해, 혹은 복잡한 동아시아의 정치역학에 의해 이용되어 실체화될 가능성”은 전망의 수준에 머물렀으며,⁶ “인터넷 습격대”에서 “정치적 오피니언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분석도 적확하지만 개설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⁷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수 정치권과의 협력 혹은 경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치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넷우익이 전력투구했던 2014년 도쿄 도지사 선거를 돌아보며, 재특회의 대응 양태를 더듬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글에서는 넷우익 내부의 다양성과 그 동학에 주목함으로써 정치화의 미래상을 점쳐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첨예화된 반미와 친미 문제, ‘위안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협력과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을 파고들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넷우익이 그렇듯이 주로 인터넷 블로그와 관련 사이트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했다. 혐한과 역사 갈등, 정치화에 관한 ‘육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생한 실태를 포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의 우경화와 넷우익의 관련성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으로, 『일본학』 39호, 2014.

5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사회』, 2014년 3월; 조관자,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 『아세아연구』 59-1, 2016.

6 김효진, 「기호(嗜好)로서의 혐한(嫌韓) 혐중(嫌中): 일본 넷우익(ネット右翼)과 내셔널리즘」, 53쪽.

7 조관자,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 260~261쪽.

2. 네티우익의 분류

네티우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블로그상에서 보수적·국수주의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들”로 정의해두자.⁸ 그들의 특징은 개인성, 유희성, 무정형성으로 압축되는데, 그 공통분모는 혐한·반중의 배외주의와 거대 매스컴에 대한 불신이다. 그중에서 혐한은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칭 네티우익인 후루야 쓰네히라(古谷經衡, 1982~, 이하 필요시 출생년도 명기함)에 따르면 배외주의의 내실은 혐한 7, 혐중 2, 혐북한과 혐미를 합쳐 1의 비율이며, 최근에는 혐한이 식상해져 혐중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설명한다.⁹ 덧붙여 네티우익의 본질은 ‘반(反)미디어’라며 “아사히신문, TBS, 후지TV, NHK… 혐한에 가탁한 혐미디어라는 본질이 나타난 것은 2011년의 반후지TV 데모”였다고 풀어낸 바 있다.

그런데 네티우익의 내부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단일체로 묶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일치된 결론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도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활동 무대로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잣대를 바탕으로 나름의 분류 방식을 세우고자 한다. 첫 번째 잣대에서는 ‘블로그 네티우익’과 ‘댓글 네티우익’이 도출된다. 두 번째 잣대는 온라인 활동에 안주하는 부류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재특회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런 구분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네티우익의 정치화를 고찰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블로그 네티우익과 댓글 네티우익

먼저 블로그 네티우익은 독자 혹은 공동의 공간에서 적절한 논리와 문장력을 겸비한 블로그를 올리는 사람들이며, 댓글 네티우익은 주로 익명 사이트인 ‘2채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짤막한 댓글을 양산하는 부류다. 댓글

8 <https://kotobank.jp/word/%E3%83%8D%E3%83%83%E3%83%88%E5%8F%B3%E7%BF%BC-189437>(최종 검색일: 2016. 10. 2).

9 <http://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16033000003.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5).

글 네티익과 블로그 네티익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한 블로그 네티익의 지적에서 좋은 실마리를 얻었다. 2005년 3월부터 현존하는 블로그 운영자 반마코토(坂真)는 자신이 네티익으로 지칭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2008년 2월의 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⁰

‘네티익’이라는 말, 정말이지 ‘좌익의 조어’라는 느낌이 납니다.

일본인은 ‘우익’이라면 ‘가이센(街宣) 우익’¹¹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비이성적이며 그다지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익은 그런 이미지에 ‘넷’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거칠고 공격적이며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기화로 상대를 비방 중상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하지만 그런 인간, 우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령 한국·조선인을 ‘총’(총)이라 부르고 중국인을 ‘창코로’(창코로)라 부르는 무리, 그들은 단지 하등인간입니다.(밑줄은 필자, 이하 마찬가지)

일부겠지만 블로그 네티익 중에는 댓글 네티익을 ‘하등인간’이라 부르며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한·반중과 같은 자국중심주의의 내셔널리즘을 신봉해도 블로그 네티익에게는 국내 정치가 최우선의 척도라면, 댓글 네티익의 경우는 배외주의 성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표현을 바꾸면 블로그 네티익의 협한은 수단이고, 댓글 네티익은 협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양자는 정보의 발신자와 소비자라는 점에서 관계를 맺으며 차이를 드러낸다. 이 점을 좀 더 상술해보자.

청년 시절 극좌였다는 반은 일본 좌익의 ‘국가관’을 성토했는데 열정적으로 보인다.¹² 그에 따르면 일본의 좌익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

10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2008/02/post_b2b1.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4).

11 통상의 우익단체를 구성하며 제복을 입고 검은 색의 선진 차량으로 시위와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우익의 총칭이며, 경찰의 용어는 ‘행동우익’이다.

12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2011/12/index.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4).

취하기 위한 도구인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반일’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가서 위안부와 함께 일본대사관에 몰려가”거나 “난징대학살기념관에 자금 원조하”는 것과 같이 “현 체제=현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매국도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좌파(야당)는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가 주류가 되고 말았”으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국가에 공명하거나 동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논리 체계를 갖춘 블로그 네티우익은 사실상 새역모와 재생기구와도 연결되는 존재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에 비해 댓글 네티우익은 출처가 불분명한 헛소문 부류를 제외하면 반과 같은 블로그 네티우익이 조리 있게 풀어내는 ‘위안부’의 날조설과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주장을 반사적으로 수용하고 확산시켜나간다. 가령 네이버의 ‘지식인’과 유사한 야후의 ‘찌주머니’(知惠袋)를 보면, ‘네티우익은 어째서 반미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의 대답 중 하나는 “반한, 반중 블로그밖에 보지 않으며, 그 외의 정보는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인터넷 이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다”고 되어 있다.¹³

후루야 쓰네히라는 네티우익의 이론적 지주가 “보수의 논리”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댓글 네티우익의 실태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⁴ 보수 논객이 ‘중국위협론’을 외치면 네티우익은 ‘중국인 패썹하다’고 맞받으며, ‘미일동맹 강화’를 외치면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반일’이라고 못 박는다는 것이다. ‘복사’가 아니라 ‘기생’한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 그것은 실은 ‘보수’라 보이는 사람들이 출판하거나 기고하는 책이나 잡지를 상세히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자기 얘기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복사’는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티우익’은 원래 원문을 읽지 않으며, ‘보수’가 말하는 논리의 제목과 목차밖에 보지 않는다. … ‘네티우익’은 체계화된 ‘보수’의 논리

13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157021871(최종 검색일: 2016. 10. 8).

14 <http://politias.jp/features/2/article/162>(최종 검색일: 2016. 10. 8).

에 그대로 기생하여 제목만 보고 표현을 과격하게 가공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후루야는 2014년 11월 50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던 ‘『5분이면 알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가 없어진다면’이라는 유튜브의 동영상 을 예로 들어 설명을 보강한다. 보수 계열의 저널리스트가 만든 이 동영상 중 “만약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작원이 숨어들어와 순식간에 오키나와가 중국에 점령된다”는 구절이 네티즌을 자극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는 이 언급이 마치 ‘중대한 근거’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퍼져 ‘중국인 패썹하다’는 반응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2) 온라인 네티즌과 오프라인 네티즌

네티즌은 주로 인터넷에서만 활동하고 존재한다. 그런 특징을 반영한다면 ‘온라인 네티즌’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하지만 2006년부터 새롭게 재특회와 같은 ‘행동하는 보수’(이하 ‘행동보수’)가 태동했다. 먼저 재특회는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 1972~)가 2006년 12월 설립하고 이듬해 1월부터 집회를 시작했다(시기상으로 1기 아베 내각의 출범과 일치한다). 재특회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일본문화채널 사쿠라(이하 ‘채널사쿠라’)와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이하 ‘힘내라일본’) 그리고 이 둘을 움직이는 미즈시마 사토루(水島聡, 1949~)다. 채널사쿠라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TV프로그램 제작사로서 2채널과 더불어 네티즌의 온상이며, 힘내라일본은 2010년 2월 결성된 채널사쿠라 내지 미즈시마의 실질적인 운동체다. 이들을 ‘오프라인 네티즌’이라 명명하기로 하자.

사쿠라이는 2006년에 벌어졌던 고노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행동보수의 기원이라고 설명했다.¹⁵ 재특회의 경우 선전 차량으로 큰 음량의 군가와 구호를 내보내는 가이센(街宣) 우익과 달리 서명운동과 현수막을 내건 시위행진을 벌이는 시민운동을 자처한다. 이런 활동상을 동영상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전하고 퍼뜨리게 되는데, 여기서 온라인 넷우익과의 점점과 교류의 토대가 마련된다.

정통 우익단체 일수회(一水會)의 전 대표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 1943~)는 넷우익의 최대 장점이 기존 우익과의 차별성을 확보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¹⁶ 넷우익은 스스로를 ‘우익’이 아니라 ‘시민운동’이라 부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찬동자를 모으듯이 보통 사람들이 손쉽게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다. 가두선전 활동을 할 때도 사전에 경찰과 협의하여 체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런 넷우익을 스즈키는 ‘우익판 베헤이렌(ベヘイレン)’¹⁷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시민운동과 유사한 오프라인 넷우익의 대두는 온라인 넷우익뿐 아니라 넷우익 전체의 공동인식(그런 면에서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불러야 할 주장과 맞닿아 있다. 넷우익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이센 우익의 실체는 한국인·조선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익 단체의 대표자는 일본 국적이 없다는 블로그의 검색 순위가 매우 높으며,¹⁸ 2채널의 댓글에서는 “우익 단체가 자이니치(在日, 재일코리안을 가리킴, 필자)의 자작극이라는 건 상식인데?”와 같은 구절이 넘쳐난다.¹⁹ 요컨대 기존 우익을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혐한의 코드에 실어 구축·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블로그 넷우익은 가이센 우익에 더해 오프라인 넷우익(그에 동조하는 온라인 넷우익 포함)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소개한 반은 “거칠고 비이智적이며 그다지 좋은 인상이 없”는 것이 가이센 우익의 이미지라고 말하면서 “재특회의 언동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바도 있다”는 정도로 소극적이고 신중하다.²⁰ 다른 블로그 넷우익은 재특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15 <http://ameblo.jp/doronpa01/entry2-10359325867.html>(최종 검색일: 2016. 10. 8).

16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20811_136663.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3).

17 베헤이렌은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連合)의 약칭으로 1965~1974년까지 존속했던 반전단체로서 규약도 회원 명부도 없이 자유의사에 의한 참가를 원칙으로 했다.

18 <http://www.geocities.jp/uyoku33/>(최종 검색일: 2016. 10. 9).

19 <http://fox.2ch.net/test/read.cgi/poverty/1445327746/>(최종 검색일: 2016. 10. 9).

20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cat5186822/>(최종 검색일: 2016. 10. 14).

불쾌감을 피력한다.

다만 반일변태좌익은 국익을 훼손하는 존재며 우리 적이지만,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데모를 하는 무리도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사람이란 저 정도야...라고 여기게 하는 데 최적입니다, 그 데모는.
일반 국민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반일변태좌익이나 한국은 아베 정권과 그 데모대를 묶어서 비판합니다.
저 배타적인 데모도 아베 정권도 일본의 우경화, 전전 회귀의 상징이라고.²¹

넷우익을 포함하는 보수 영역 전반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이 또한 넷우익의 실체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
인이기도 하다.

그러면 블로그 넷우익과 댓글 넷우익, 온라인 넷우익과 오프라인 넷우
익을 구분함으로써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점이야말로 본 연구
의 입각점인 동시에 출구가 된다.

최근까지 넷우익 내부의 동향은 복잡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관찰된다.
블로그 넷우익과 댓글 넷우익, 온라인 넷우익과 오프라인 넷우익의 '수렴'
이 시도되고 '분화'가 현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키워드는 우경화의 진전
과 맞물리는 넷우익의 정치화다.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아베가 복귀하는
정치적 변화가 큰 테두리에서 작동했다면, 넷우익의 총아로서 다모가미 도
시오(田母神俊雄, 1948~)가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은 넷우익 내부에서
추동된 변화의 기제이자 장이었다.

21 <http://blog.goo.ne.jp/yamanooyaji0220/e/6cd5201d9f8ac2da00191534e70c867d>(최종 검색일: 2016.
10. 14).

3. 넷우익의 정치화

1) 다모가미 도시오와 넷우익

(1) 다모가미 도시오의 등장

다모가미 도시오는 항공자위대의 참모총장인 항공막료장(아베 1기 내각 때인 2007년 3월에 임명됨)을 역임한 자위관, 즉 군인이지만, 한 편의 논문으로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한 뒤 ‘각하’라 불리면서 넷우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후루야의 표현을 빌리면 “다모가미 씨는 우리나라의 넷우익 역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최대의 키퍼슨(key person)”이다.²²

2008년 10월 다모가미는 한 기업의 공모논문예 「일본은 침략 국가였는가」를 투고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미일전쟁은 루스벨트의 책략”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정부 견해와 배치된다는 점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연립 내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항공막료장은 경질에 정년퇴직까지 감수해야 했다.

다모가미 파동은 사실 보수에게 돌발적인 악재에 지나지 않았다. 교과서우익의 신주류로 부상한 재생기구 회장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1962~)는 “막료장이 현상에 응모한다는 건 좀 그렇다. 신중함이 부족하다. 당시부터 이렇게 전략성이 없는 사람이 자위대의 리더로 괜찮은 건가 생각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다.²³ 하지만 넷우익에게 항공막료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다모가미의 데뷔는 ‘다모가미 선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²⁴ 즉 “기존 거대 미디어의 목살·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 권위로부터의 승인에 굶주렸던 넷우익은 ‘전 항공막료장 다모가미 도시오’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22 <http://bylines.news.yahoo.co.jp/furuyatsunehira/20160307-00055147/>(최종 검색일: 2016. 10. 7).

23 『아사히신문』 2016. 5. 3.

24 <http://bylines.news.yahoo.co.jp/furuyatsunehira/20160307-00055147/>(최종 검색일: 2016. 10. 7).

것이다. ‘권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모가미 씨가 한 말이니까 틀림없다’는 심리가 네티우익 전체를 휩쓸었다.

네티우익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다모가미에게 강력한 원군이 찾아왔는데, 바로 채널사쿠라 사장 미즈시마 사토루였다. 2010년 2월 결성된 힘내라 일본은 사실상 다모가미 옹립을 위한 조직이었다. 다모가미가 회장을, 미즈시마는 간사장을 맡았다.

다모가미의 등장과 지지자의 결집 이전에 네티우익이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실태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2012년 11월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아베 정권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중요한 분수령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징후는 선거 운동에서 관찰된다. 2012년 11월 노다 수상이 가두연설을 하는 곳에 재일한국인을 자처하는 5명 정도가 태극기를 들고서는 ‘민주당 힘내라’, ‘만세’, ‘자이니치에게 참정권을’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²⁵ 특히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이던 민주당이 실은 재일한국인, 즉 외국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였다.

2014년 1월 7일 다모가미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일본유신회의 공동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1932~), 작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 1956~)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대거 응원석에 앉았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를 지원했다.

다모가미의 출마는 미즈시마가 2013년 12월 송년회에서 입후보할 것을 설득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²⁶ 미즈시마는 채널사쿠라 사장을 사임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전에 전력투구했으며, 힘내라일본과 채널사쿠라는 다모가미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2월 9일 투표함이 개봉되었다. 다모가미는 비록 4위로 낙선했지만 61만 865표(득표율 12.5%)를 얻어 세간을

25 <http://deliciousicecoffee.blog28.fc2.com/blog-entry-4888.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4).

26 <http://bylines.news.yahoo.co.jp/furuyatsunchira/20160307-00055147/>(최종 검색일: 2016. 10. 7).

놀라게 했다. 선거가 끝난 뒤 3월에 미즈시마는 다시 채널사쿠라의 사장으로 복귀했다.

(2) 60만 표의 함의

2014년 1월 27일자 『산케이신문』은 다모가미의 희망은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력이라며 사실상 넷우익의 결집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다. 넷우익을 자처하는 모리 다카히사(森鷹久, 1984~)도 다모가미의 지사 출마를 탐탁찮게 생각했다.²⁷ 다모가미의 연설 중에서 ‘후쿠시마의 주민은 즉각 귀가’, ‘폭행을 당한 여성은 그런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등의 발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실종되었듯이, 전체적인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넷우익은 험한이라는 대외 관계를 주축으로 모인 탓에 선거 결과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버릴지 모른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다모가미는 60만 표를 얻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넷우익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기에 충분해 보였다.

『아사히신문』 2014년 2월 11일자 기사를 통해 선거를 전후한 다모가미 진영의 동태를 살펴보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연설회에는 약 200여 명이 모였다. 다모가미는 ‘침략전쟁, 난징사건, 중군위안부 전부 거짓말’, ‘야스쿠니 신가에 참배하여 자랑스러운 역사를 회복하자’며 역사 문제를 건드리고 ‘외국인 참정권 반대’를 부르짖었다. 청중은 중장년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유권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역사의 진실은 모르겠지만, 다모가미 씨와 같이 생각한다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회사원, 26세 남성)거나, “평화를 지킨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회사원, 25세 여성), “우왕좌왕하는 정치가가 많은 가운데 강함을 느꼈다”(남학생, 21세)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다모가미는 투표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직표가 없는 가운데 일정한 성과는 거뒀다.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런 평가를 내렸다.

27 <http://takahisamori.blogspot.kr/>(최종 검색일: 2016. 10. 11).

그런데 개표 후 30만 표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나자 간부의 입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이라는 흥분 섞인 자신감이 터져나왔다.

60만 표의 내역을 놓고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미즈시마는 넷우익이 핵심 지지층이라 봤지만, 인터넷 뉴스 편집자는 넷우익보다 넓은 보수층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모가미를 지지했던 후루야는 60만 표 획득을 넷우익의 신기원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의 존재였던 '넷보수', '넷우익'의 실태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득표율이 낮고 실제에 가까운 넷보수의 기초표가 밝혀진 것이 아닐까. 새로운 정치 클러스터(집단)로 현재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후루야의 해석은 다모가미를 지지한 유권자 중 20대와 30대가 많다는 점과 직결된다. 아사히신문사가 실시한 세대별 출구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대 투표자 중에서 다모가미는 당선자인 마스조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30대에서는 3위에 올랐다(실수는 40대가 최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의 1.7배에 달했다.

다모가미의 60만 표는 넷우익 진영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한국 경제의 추락을 주창하여 넷우익의 추앙을 받는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 1969~)의 글을 통해 그 점을 해부해보기로 하자.²⁹

미쓰하시는 60만 표라는 득표력을 참의원 선거의 전국 비례에 대입하면 7~8명의 당선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공산당이나 공명당급의 정치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한 자릿수에 머문 60~70대의 지지 방안, 보수 외에 무당파 다수를 끌어안을 방안 등의 두 가

28 「田母神氏60万票の意味「ネット保守」支持 都知事選」, 『아사히신문』 2014. 2. 11.

29 <http://ameblo.jp/takaakimitsuhashi/entry-11768813096.html>(최종 검색일: 2016. 10. 7).

지를 제시했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미쓰하시 스스로 선거운동과 보수운동의 차이점을 거론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향후 다모가미에게 필요한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자신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이후의 현실은 그가 예상한 최악의 수순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20대에서 2위 득표력의 실체도 엄밀하게 되짚어야 한다. 사실 선거 이전에 인터넷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다모가미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렀으나, 실제 투표장에 나간 20대는 겨우 24%에 지나지 않았다. 20대 가운데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넷우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넷우익 정치화의 한계

(1) 다모가미 도시오의 몰락

첫 도지사 도전에 고무된 다모가미는 이후 정계 진출을 가속화했다. 2014년 8월 힘내라일본의 회장을 내놓았다. 뒤이어 9월 당시 활동이 전무하던 '태양의 당'에 참가했고(국민운동본부장에 취임), 11월 태양의 당이 '차세대당'과 통합하자 부대표에 발탁되었다. 곧바로 중의원 선거(도쿄 12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리고 차세대당은 2015년 12월 '일본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당'(2017년 2월 '일본의 정신'으로 개명, 이하 '정신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넷우익과의 친화도도 가장 높다.

그렇게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2015년 2월, 돌연 미즈시마와 다모가미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었다. 미즈시마는 채널사쿠라를 통해 도지사 선거를 위해 모금했던 정치자금 일부를 선거책임자가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개했고(고발 예고), 관련 신문보도가 이어졌다.³⁰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다모가미는 신의의 위반이라면서 “도지사 선거에서는 내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게 되어 있었으나, 차츰 내가 그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그

30 <http://matome.naver.jp/odai/2142451033171606701>(최종 검색일: 2016. 10. 10).

다지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도지사 선거 후에 남은 정치자금의 운용 방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미즈시마는 힘내라일본 구좌에 옮길 것을 의뢰했으나 다모가미가 불응)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었으나, 수습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미즈시마 측이 실제로 검찰에 횡령죄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2015년이 저물기 직전인 12월 29일이었다.³¹ 이에 다모가미 측은 미즈시마의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다모가미의 선거를 방해하고자 획책한다며 법정에서 다툴 것을 주장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6년 3월 7일 다모가미의 자택과 사무소를 수색하기에 이른다.

결론은 미즈시마 측이 걸었던 횡령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쪽에서 나왔다. 2016년 4월 14일 두 번째로 도쿄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다모가미는 첫 선거의 정치자금 일부를 선거 운동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운동원 매수)로 선거본부 회계책임자와 함께 체포되었다. 공판은 6월 말의 제1차 이후 두 차례 더 열렸으며, 제3차 공판 뒤 9월 29일 법원은 다모가미의 보석을 인정했다(회계책임자와 운동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음).

미즈시마 측은 2016년 4월 14일 채널사쿠라를 통해 2014년 2월 9일자로 선대본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자금 용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³² 다모가미 측은 재판 준비에 임하는 한편 미즈시마에게 ‘명예 회복을 위한 선전포고’를 부르짖었다.³³ 2017년 5월 1심 재판부는 다모가미에게 징역 1년 10월과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언도했다.

(2) 넷우익 정치화의 심층

넷우익은 다모가미와 미즈시마의 다툼부터 다모가미의 체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달궜다. 그 경과를 훑아보면 정치화의 외관에 감춰진 넷우익의 본령을 읽어낼 수 있다.

31 <http://hitorigot0.blog.jp/archives/1048501817.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0).

32 <http://www.nicovideo.jp/watch/1460618224>(최종 검색일: 2016. 10. 9).

33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archives/53200869.html(최종 검색일: 2016. 10. 9).

다모가미와 미즈시마의 다툼이 알려지자마자 넷우익은 찬반양론으로 갈렸는데, 태반은 둘 다 문제라는 쪽이었다고 한다.³⁴ 그런 내막을 전하면서 첨부된 메시지는 넷우익의 진수를 보여준다.

사건의 진전에 따라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하고 싶다. 어느 쪽도 사라질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기회만큼 쌍소멸(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동시에 소멸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인공자)로 부탁드립니다.

‘모처럼의 좋은 기회’라는 구절이 화제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물리학의 쌍소멸에 빗대어 어느 쪽도 사라진다는 표현은 넷우익의 개인성과 유희성의 극치를 표상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다모가미를 응원하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넷우익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다모가미의 체포 소식 또한 넷우익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다모가미 씨 혐의가 맞으면 정말 충격인데”³⁵는 지극히 자연스런 반응이다. 그런데 체포가 보도된 이후 다모가미는 재일외국인이라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2채널에서는 “다모가미는 자이니치!”, “체포됐다면 자이니치라는 거잖아. 그러나 자이니치가 막료장까지 출세한다는 건 문제”라는 글이 올라왔을 정도다.³⁶ 다모가미의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과 표현이 지극히 넷우익스럽다.

후루야의 지지 철회 또한 넷우익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원래 ‘다모가미 논문’의 발표 시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그의 자질에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저작 내용을 종합해도 도저히 도지사의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변명이 그러하다.³⁷ 이것을 후루야의 기회주의적 속

34 <http://matome.naver.jp/odai/2142451033171606701>(최종 검색일: 2016. 10. 10).

35 <http://kamatyo.com/archives/4290>(최종 검색일: 2016. 10. 9).

36 <https://www.adect.net/archives/406>(최종 검색일: 2016. 10. 7).

37 <http://bylines.news.yahoo.co.jp/furuyatsunehira/20160307-00055147/>(최종 검색일: 2016. 10. 7).

성이라기보다 네티우익의 내부자조차 네티우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정형성을 암시하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독법이 아닐까 싶다.

2015년 12월 네티우익이 쇠퇴할 것이라는 후루야의 진단을 놓고 2채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³⁸ 댓글의 대부분은 쇠퇴를 수긍하지 않는데, 두 댓글은 일독할 가치가 있다. 하나는 네티우익의 본질을 파고든 글이다.

쇠퇴든 뭐든 네티우익은 사실 조직이 아니니까 [그런] 인식이 우습네.
결국은 단지 스트레스 발산하는 개인이니까 쇠퇴도 뭐도 없는 거지.

위의 글이 네티우익의 부정형성을 적확하게 지적했다면, 다른 하나는 네티우익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한 분석이다.

네티우익은 쇠퇴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끝나서 필사적이 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
평화로운 시대에 데모하는 건 좌익뿐이잖아.

네티우익을 주도하는 부류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3) 사쿠라이 마코토의 정치 참여

어느 블로거는 다모가미가 체포되면서 “네티우익의 한 상징이 사라졌다”며 “‘다모가미 세대의 네티우익’이 명실상부하게 ‘과거형’이 된 역사적 순간이다”는 평을 발신했다.³⁹ 하지만 다모가미가 일궈낸 네티우익 정치화의 지평은 오프라인 네티우익의 정치화 의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다모가미의 몰락은 네티우익의 또 다른 총아 사쿠라이 마코토가 정치에 발을 담그는 기폭제가 되었다.

38 <http://hayabusa3.2ch.net/test/read.cgi/news/1450015388/>(최종 검색일: 2016. 10. 17).

39 <http://matome.naver.jp/odai/2146316796193430901>(최종 검색일: 2016. 10. 7).

다모가미에게 닥친 위기가 심각해짐과 동시에 사쿠라이는 정계 입문을 타진하게 된다. 그런 흔적을 엿보게 하는 글이 2016년 3월 13일자 사쿠라이의 블로그에 실려 있다.⁴⁰ 다소 길지만 일독할 가치는 충분하다.

... 착착 정치 세계의 발판을 쌓아온 다모가미 씨에게 이번 지검특수부의 강제 수사는 정치 세계의 발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다모가미 씨의 앞날은 대단히 험난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다모가미 씨를 몰아친 미즈시마 씨도 도지사 선거 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아마 이제부터 내부에서도 큰 다툼이 생길 터입니다. 누구도 득을 얻지 못하는 고발이 초래한 영향은 심대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듯 보이지만 비난의 화살은 미즈시마 쪽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미즈시마의 고발은 “누구도 득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예기치 못한 다모가미의 실각을 틈타 사쿠라이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한편 관계가 소원했던 미즈시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쿠라이의 예상대로 다모가미 지지파는 미즈시마 비난과 더불어 사쿠라이 후보의 응원을 촉구하고 나섰다.⁴¹

사쿠라이는 재특회 회장이던 시절에는 정계 진출을 부인했다. 2014년 11월 재특회 회장을 물려주면서 정치가가 되지 않겠다고 언명했고, 젊은 정치 지망생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⁴² 모델은 미국 공화당 보수파의 지원단체 티파티였다. 그런데 2016년 6월 16일 사쿠라이는 기왕의 방침을 바꿔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산케이신문』 7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7개 공약은 주로 재일외국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보호비 지급 정지, 불법 체류자를 4년 동안 절반으로 줄임, 일본인에 대한 반일 헤이트스피치 금지 조례 제정, 한국인 학교 증설 중지, 파

40 <http://ameblo.jp/doronpa01/entry-12138321281.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0).

41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archives/53185946.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1).

42 <http://www.nicovideo.jp/watch/sm24896221>(최종 검색일: 2016. 10. 11).

친코의 제한 등이었다. 7월 31일 치른 투표의 개표 결과 사쿠라이는 5위로 11만 4,171표를 얻었다. 당선자는 자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무소속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였다.

재특회로 인지도를 높인 넷우익의 한 ‘고참’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호불호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넷우익 내부에서 배태되었다는 점에서 사쿠라이는 다모가미와 결을 달리한다. 그 점에서 정치가 사쿠라이의 최근 동태를 뒤쫓아가면 넷우익의 좌표와 미래상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먼저 주요 신문 매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은 2016년 5월 제정된 일명 ‘헤이트스피치법’과의 관련성이다. 사쿠라이나 재특회가 내걸었던 ‘한일 단교’, ‘재일한국인이 지닌 특권을 박탈하라! 일본인 차별을 중지하라’, ‘자이니치는 한국에 돌아가라’ 등의 극언을 지사 선거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법 영향의 규명은 다른 두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먼저 법의 강제력은 없지만 운동의 약체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사쿠라이로서는 활동 거점을 정치권 내부로 옮기는 전략을 구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쿠라이가 선거차량에 탑승하여 차별 발언을 담아 연설하면 반대파의 항의와 몸싸움이 있기 마련이다.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선거 연설과 충돌을 TV와 매스컴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쿠라이와 재특회의 지명도는 당락에 상관없이 상승하며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는 실리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미즈시마도 발언했듯이 재특회와 사쿠라이가 헤이트스피치법 제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이다.⁴³ 넷우익은 물론 보수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 법을 공격하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넷우익의 정치화라는 회로를 더듬어보면 사쿠라이의 출마 선언

43 <https://www.youtube.com/watch?v=o8ejMCRqGs0&feature=youtu.be&t=37m9s>(최종 검색일: 2016. 10. 11).

은 60만 표의 '신화'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선거 이후 8월 29일 선거 조직을 '일본제일당'이라는 정당으로 개편함으로써 정치가로서 나아간다는 것을 선언했다. 9월의 블로그에서 그는 다모가미가 미즈시마를 측근으로 삼은 불찰을 꼬집으며, 다모가미는 군인이자 정치가가 아니었고 군사평론가로서 정치가의 조언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⁴⁴ 아직 영향력이 남은 다모가미와 제휴하겠다는 언질로도 읽힌다.

3) 정치화의 미래상

60만 표에서 11만 표로의 격감이 상징하듯 사쿠라이도 넷우익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다모가미의 추락 이후 넷우익의 정치화는 물론 넷우익의 내부 지형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쿠라이가 선점한 도지사 후보라는 자리를 놓고 미즈시마의 채널사쿠라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쿠라이와 미즈시마의 사이는 2009년과 이듬해에 걸쳐 불화와 화해를 연출했지만,⁴⁵ 도지사 선거 기간 중에 다시 불화로 돌아섰다. 구심력의 해체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선거 초반 사쿠라이의 동정 보도가 일체 없자 미즈시마와 사쿠라채널에는 고이케 응원 채널이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7월 23일 사쿠라이는 트위터에 “사쿠라이가 ‘방송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어쨌든 방송프로덕션이므로 사원사정(私怨私情)으로 자신의 체면을 깎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⁴⁶라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나아가 7월 26일 장애인 시설의 근무자가 19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즈시마는 27, 28일 용의자와 재특회가 유사한 차별주의

44 <http://kumo-tarooo.seesaa.net/article/441859003.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1).

45 2009년 8월 30일자 유튜브의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XQ51GMSTI7E&NR=1>, <https://www.youtube.com/watch?v=pH3UIRgCGKM&feature=related>)에서는 채널사쿠라를 비판하는 장면을, 2010년 2월 22일자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CGHUoIAPvc>)은 화해하는 장면을 각각 담고 있다(최종 검색일: 2016. 10. 11).

46 <http://meron.vanillapafe.info/archives/6783>(최종 검색일: 2016. 10. 10).

자라고 단언하는 방송 2편을 잇달아 제작, 방영했다.⁴⁷ 31일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사쿠라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역력했으며, 11만 표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미즈시마는 ‘참패’라고 평가했다.

넷우익에 정통한 후루야는 11만 표를 ‘상정 범위 내의 건투’로 평가하지만, 향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⁴⁸ 그 이유로 넷우익층은 행동보수에 대해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어 “혐한적 자세는 견지하지만 그 정도로 과격한 행동까지는 긍정하지 않는 대다수 넷보수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든다. 그리고 “넷보수층에게 다모가미를 뛰어넘는 초신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차세대당 탄생 이전의 상황, 즉 자민당 지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하에서 밝히겠지만 자민당 지지라는 선택지 또한 응집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넷우익은 온라인의 에너지를 오프라인의 정치 세력화로 이끌어내는 공식도 경험도 아직 갖지 못했으며, 그런 자중지란의 과정에서는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자민당 지지 정도만 정치 현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넷우익에게는 개인성, 유희성, 부정형성으로 쏠리는 자기장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4. ‘위안부’와 반미, 넷우익

1) 넷우익과 ‘위안부’

(1) ‘원점’으로서의 ‘위안부’ 문제

혐한과 배외주의를 내건 넷우익은 정치화의 가능성이 열린 시점에서 좌절과 쇠락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서 속단은 힘들지만 그 내실을 짚어보는

47 <https://www.youtube.com/watch?v=0CmJZn-OlpU>, <https://www.youtube.com/watch?v=EhIRxnOT2-4>(최종 검색일: 2016. 10. 10).

48 <http://bylines.news.yahoo.co.jp/furuyatsunchira/20160801-00060598/>(최종 검색일: 2016. 10. 10).

작업은 넷우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점에서 교과서우익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와 반미는 역사 갈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적절하고도 유효한 소재가 된다.

‘위안부’ 문제는 교과서우익과 마찬가지로 넷우익에게도 사실상의 ‘원점’이었다. 특히 민주당 정권 말기인 2012년 노다 요시히코 내각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천황 사죄 발언 등과 연동되면서 ‘위안부’라는 쟁점은 넷우익의 주경기장이자 최대 득점원이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12년 3월의 글이다.

위안부(매춘부)는 있었지만 중군위안부(성노예)는 존재하지 않았다—
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해외를 향해 발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합니다.
차기 정권을 기대하는 바다.⁴⁹

넷우익이 민주당 정권을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매국반일정권’이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다. 한류 배경, 즉 혐한을 기치로 내걸었던 넷우익에게 민주당의 역대 내각은 한국을 비호하고 중국에 굴종하는 매국노였다. 가령 ‘도라네코일기’라는 블로그 작성자(이하 도라네코)는 “자민당 정권도 노리카 히로무(野中広務, 은퇴),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낙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같은 지나 노에 총리(지나는 중국 멸칭, 인용자)도 있어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같이 전원이 지나 총오염 쓰레기인 정권은 처음이다”는 발언이 그러하며,⁵⁰ 아베 정권 탄생 후인 2013년 3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천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한일 단절=일본의

49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2012/03/>(최종 검색일: 2016. 10. 14).

50 <http://ryotaroneko.ti-da.net/e3674155.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행복!”이라 부르짖기도 했다.⁵¹

2012년 12월의 총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은 대승을 거두었다. 이듬해 10월 노다 정권 말기에 한국과 ‘위안부’ 문제의 협의를 중의원 해산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티우익의 반응은 ‘중의원 해산되어 다행이다’, ‘민주당은 정말 매국당이네…’ 등 매국을 공통어로 내건 비판이 대부분이었다.⁵²

2014년 8월 5~6일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강제연행의 주요 근거로 여겨온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것이 네티우익에게는 절호의 먹잇감이 되었다. 허위의 검정과 인정 그 자체는 언론의 본령이라 하겠지만 『아사히신문』에게는 아베 정권이라는 정치 환경은 물론 타이밍마저 최악이었다.⁵³ 네티우익의 관점에서 보면 원점으로서의 ‘위안부’라는 소재에다 자신들의 에토스인 기존 매스컴 혐오증을 자극하는 최고의 소재를 손에 쥔 형국이었다.

(2) 12·28합의와 네티우익의 반발

2015년에 들어서자 네티우익과 아베의 밀월 관계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7월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중에서 조선인이 징용되었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와 관련하여 벌어졌다. 유네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는 구절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한 네티우익의 분노를 샀다. 2채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네티우익이라 불린 지 5년이네. ...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아베라는 남자를 만났다. 우리는 그를 믿고 민주당 박멸 작전과 후지TV 시청률 박멸 작전의 반포위망 작전에서 싸움을 벌였다. ...

51 <http://ryotaroneko.ti-da.net/e4447266.html> (최종 검색일: 2016. 10. 17).

52 <http://girlschannel.net/topics/53647/> (최종 검색일: 2016. 10. 14).

53 1997년에도 유사한 내부 검증을 거쳤지만 기사를 철회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타국에도 전우가 늘어난 순간, 뒤에서 돌연 영어로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의 유산인 군함도(軍艦島)를 강제연행 섬으로 세계유산으로 한다는 신무기로 용단폭격을 받았다. …

현 시점부터 민주당 박멸 작전과 후지TV 시청률 박멸 작전을 일시 중단하고, 이중 스파이인 아베 정권 박멸 특공 작전을 결행한다. …⁵⁴

아베 수상을 매국노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 그는 전형적인 댓글 네티우익으로 보인다.

뒤이어 네티우익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합의(이하 12·28합의)한 것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원점에 대한 훼손이었으니만큼 네티우익 전체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네티우익의 소굴이라 얘기되는 사이트 ‘보수속보’에는 아베 수상과 자민당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적지 않았으나, 2채널 등에서는 ‘일본 완패’가 공통어에 가까웠고, 댓글 또한 아베 수상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 혐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⁵⁵ 합의 직후 아베 수상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사기꾼 매국 아베! 일본에서 나가라!’든가 ‘국적(國賊), 아베 신조는 지금 당장 죽어라’ 등의 과격한 문구가 난무했다. 이에 대해 후루야는 “아베 수상을 ‘협한의 스타’로 추켜세운 네티보수로서는 ‘위안부’ 문제에서는 일체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강경 자세를 기대했다. 그런 만큼 배신당했다는 생각일 것이다”고 지적하면서도 비판은 일시적으로 그칠 것으로 봤지만,⁵⁶ 고노 담화의 검증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블로그 네티우익의 경우는 평가가 엇갈린다. 앞서 소개한 도라네코라는 블로거는 2015년 11월 한일 양국의 협상 움직임이 전해지자마자 “위안부

54 <http://daily.2ch.net/test/read.cgi/newsplus/1436360404/>(최종 검색일: 2016. 10. 15). ‘영어로’라는 부분은 유네스코의 결정 당시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삽입된 것을 가리킨다.

55 <http://1000nichi.blog73.fc2.com/blog-entry-8018.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니코니코동영상의 조사에서도 12·28합의를 놓고 ‘못했다’(63.3%)가 ‘잘했다’(13.6%)의 5배 가까이 많았다.

56 <http://www.asahi.com/articles/ASHDY7F32HDYUTIL01V.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0).

문제에 안이한 타협은 하지 말라!”고 외쳤다.⁵⁷ 12·28합의가 성사된 다음날 “이제 끝났다 아베 씨, 형편없다. 당신은 역사에 남을 매국 수상이 되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⁵⁸ 하지만 『산케이신문』과 사쿠라이 요시코(桜井よしこ, 1945~)⁵⁹ 등의 보수 쪽에서 ‘대한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자 동의는 하면서도 사회와 반성을 담은 아베 수상의 성명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썼다.⁶⁰ 이후 이른바 소녀상의 이전 없이 10억 엔의 지출이 결정된 2016년 8월에 쓴 글의 제목은 “조선 위안부에게 10억 엔 각출, 아베 외교의 매국 행위”였다.⁶¹ 반면에 반은 일찌감치 ‘최량의 타협’은 아니지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⁶² 이런 정치적 감각(혹은 국익)의 차이야말로 넷우익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닐까 싶다.

12·28합의에 대해 미즈시마의 힘내라일본과 사쿠라이의 재특회도 신속히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⁶³ 그 이유 중 일부는 헤이트스피치법의 여파, 다모가미의 출마와 좌절이라는 독자적인 정치화 움직임과 연계시키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오프라인 넷우익의 활로 중 하나는 자민당의 대안 세력 구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즈시마는 합의 당일 신속하게 <한일 합의 절대 반대, 내일, 관저 앞 긴급 항의 활동에 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⁶⁴ “‘국육적인 ‘자학사관’의 합의”이며 “장래에 화근을 남긴 ‘역사적인 외교 실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12월 29일 미즈시마는 힘내라일본을 동원하여 수상 관저로 항의 행진을 했다.⁶⁵ 해를 넘겨 1월 15일에는 채널사쿠라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베 정

57 <http://ryotaroneko.ti-da.net/e8132438.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58 <http://ryotaroneko.ti-da.net/e8251420.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59 기자로 출발한 사쿠라이 요시코는 TV의 뉴스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21세기 이후 보수 진영의 아이 콘으로 주목을 받으며 칼럼 집필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60 <http://ryotaroneko.ti-da.net/e8321924.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61 <http://ryotaroneko.ti-da.net/e8903054.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62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2015/12/post-89ad.html>(최종 검색일: 2016. 10. 21).

63 <http://saigaiyouhou.com/blog-entry-9348.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0).

64 <https://www.youtube.com/watch?v=iEfaZpVPBEE>(최종 검색일: 2016. 10. 13).

65 <https://www.youtube.com/watch?v=r5bINRLbsPg>(최종 검색일: 2016. 10. 13).

권 타도는 아니지만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⁶⁶ 2월 7일 힘내라일본과 정신당이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미즈시마는 12·28합의는 ‘국가적인 중대 과실’이라고 부르짖었다.⁶⁷

재특회의 사쿠라이 마코토는 합의 당일 트위터에 “징병되어 일본을 위해 싸운 자기 조상의 명예에 흠칠을 한다니 뭣이 보수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 1월 10일 ‘위안부 문제의 한일 합의를 규탄하는 국민대행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⁶⁸ 그러면서 합의에 동의한 것은 자민당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면서 “자민당 이외의 선택지를 만들지 않으면”이라는 정략적 발상까지 거침없이 드러냈다.

집회는 1월 10일(일) 오후 3시부터 도쿄 중심가인 긴자(銀座)에서 열렸다.⁶⁹ 트윗캐스팅과 니코니코생방송(2007년 설립된 UCC 사이트)이 생중계를 내보냈다. 구호는 “조선 매춘부의 허언을 인정하는 한일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와 “한국의 날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국세 투입은 허용할 수 없다!” 두 가지였다. 자체 판단으로 3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며, 여세를 몰아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8월 들어 소녀상 이전 없이 10억 엔 각출이 결정되자 사쿠라이는 재차 “자민당과 아베 총리는 보수입니까?”라며 항의를 이어나갔다.⁷⁰

2) 넷우익과 친미·반미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새역모와 재생기구의 분열극이 그랬듯이 넷우익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면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빼놓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넷우익은 친미인가 반미인가를 묻는 일이며, 21세기의 보수 정권이 친미 일변도

66 <https://www.youtube.com/watch?v=wTmp3MHECjc> (최종 검색일: 2016. 10. 17).

67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207/afr1602070029-n1.html> (최종 검색일: 2016. 10. 18).

68 <http://fox.2ch.net/test/read.cgi/poverty/1451301502/> (최종 검색일: 2016. 10. 7).

69 <http://www.koudouhosyu.info/skantou/scheduler.cgi?mode=view&no=935> (최종 검색일: 2016. 10. 7).

70 <http://totalwar.doorblog.jp/archives/48215572.html> (최종 검색일: 2016. 10. 17).

로 기울었던 만큼 넷우익의 행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그와 관련하여 블로그 넷우익의 글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두 사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 사람은 전술한 바 있는 블로그 넷우익 반 마코토다. 그는 2012년 4월의 글에서 반미보수는 ‘매국변태좌익’과 통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과 미국, 어느 쪽도 패권국가로서 오만합니다만, 일본의 국익에 합치되는 것은 미국이죠, 틀림없이.

미국은 기득권익을 지키려고 한다, 그 안에는 일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득권익을 파괴하고 새로운 권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파괴되는 기득권익에는 일본도 포함됩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⁷¹

대단히 알기 쉬운 논법이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잣대는 정권의 의향과 동조한다는 정치적인 한계를 지니지만, 반미를 논파하는 데는 가장 유효한 무기로 작용한다.

비슷한 연배의 블로거도 유사한 논점을 담고 있는데, 요점은 ‘반미우익’의 대표 격인 일수회의 언행을 비판하려는 데 있다.⁷² 원전을 반대하는 일수회는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V-22 오스프리 배치도 반대하므로 결국 반미라고 규정짓는다. 우익의 공통분모인 ‘전후체제의 탈각’의 목표는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으로 표현되는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거론하며 전후체제 타도를 말한다면 최대의 이해자는 미국이었고 최대의 장벽으로서 가로막고 선 것은 지나와 러시아”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이적인 군비 확장에 대해 이것을 저지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오

71 <http://banmakoto.air-nifty.com/blues/2012/04/post-5f5e.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4).

72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archives/52885250.html(최종 검색일: 2016. 10. 8).

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전후체제의 영속 고정화가 된다는 것을 반미 우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⁷³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후루야의 논평도 귀담아 들 만하다.⁷³ 2014년 11월 16일 오키나와 지사 선거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헤노코(辺野古) 이전을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의 승리로 끝이 났다. 넷우익은 기지 이전을 용인하는 현직 지사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기지 반대를 외치는 운동은 ‘반일좌익의 소행’이며, 오키나와의 미군은 ‘일본을 지키는 존재’라 파악한다. 오키나와의 미군을 악평하는 것은 ‘반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넷우익 중에 반미를 외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기존 연구에서도 거의 언급된 바 없다. 부족하나마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여러 면에서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집권 첫해부터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거론되자 미국 정부는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3년 10월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은 일본 방문에 야스쿠니 신사 인근의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묘원을 찾아 헌화했다. 지도리가후치 묘원은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의 무연 유골을 합장한 곳인데, 미국의 현직 각료가 참배한 것은 처음이었다. 요컨대 야스쿠니 참배는 절대 안 된다는 의사 표시였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베 수상의 참배 강행은 분명 미국에 대한 ‘도전’이었을 터이며, 미국 정부는 ‘실망’이라는 강한 톤의 논평을 내놓았다.

참배를 압박하던 『산케이신문』은 찬성 일색의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보수 주류는 물론 새역모를 탈퇴했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1953~)⁷⁴조차 아베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간포스트』 2014년 2월 14일호에서 고바야시는 ‘한중에게 굴하지 않는 애국자’라는 이미지를 과시

73 <http://politias.jp/features/2/article/162>(최종 검색일: 2016. 10. 8).

74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수정주의적인 작품을 잇달아 내놓는 한편 1997년 새역모의 창립과 첫 역사 교과서 집필에도 관여했다. 이후 반미를 둘러싸고 새역모를 탈퇴한 이후 반일적인 좌익과 친미 보수와는 다른 ‘진정 보수’를 부르짖으며 작품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려는 속셈이라 파악했으며, 넷우익을 비롯한 아베 지지층은 “한중의 반발을 무시하고 아베가 참배했다는 점에만 쫄쫄을 부르고 있다”고 짚었다. 구미에서 “아베와 그 동조자의 모습은 마치 국제 감각이 결여된 유치한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중·혐한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라는 문구는 고바야시가 넷우익을 비판하는 최종병기였다.

이런 동향을 비롯하거나 하듯 넷우익, 특히 댓글 넷우익은 더욱 공세적으로 움직였다. 미국 대사관의 페이스북을 무차별 공격하는 플레이밍(flaming, 일본어로는 炎上)을 일으킨 것이다. 참배 소동 이후에도 주일 미 대사가 돌고래 포획을 비판한 것을 놓고 플레이밍은 2월 내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그런 움직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오바마 씨 실수했네…

일본의 네티즌(民)을 앞잡아본 결과지. 페이스북 덕분에 국민들도 편하게 대사관에 항의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런 사용법도 있군요. (웃음)⁷⁵

하지만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반미의 기류보다 혐한과 반중에 무게가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이의제기보다 강한 톤으로 혐한 혹은 반중을 거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다케시마에 상륙했을 때 당신들은 뭔가 성명이라도 내놨냐? 온순하고 분별력이 좋은 일본만 참으라고 하지 말라. 일본 국민 대다수는 인내의 한계가 왔다”⁷⁶라고 한국을 끌어들이거나 “중국은 ‘일본은 미국의 개’라고 말한다. 실은 미국도 일본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애완견으로만 보는 것일까”⁷⁷라고 중국을 걸고넘어진다. 반면에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대사관의 ‘실망했다’는 코멘트에 실망했습니다.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배해도 원폭을 두 방

75 <http://kptubu.seesaa.net/article/388365655.html>(최종 검색일: 2016. 10. 8).

76 <http://deliciousicecoffee.blog28.fc2.com/blog-entry-5309.html?sp>(최종 검색일: 2016. 10. 8).

77 <http://ameblo.jp/rironon/entry-11738511969.html>(최종 검색일: 2016. 10. 8).

데, 다음의 댓글 하나만 소개해도 충분할 터다.⁸¹

응 뭐라고? 혹시 미국 대통령님께 싸움을 걸려는 거니?

암살 같은 건 통하지 않으니 관두는 게 좋고 여기서 하면 크게 사고치는 거야.

미국에 테러를 한 빈 라덴이 어떻게 당했는지 아직 기억이 생생하잖아?

미국을 비꼰다는 해석도 가능할 듯하지만, 한국 열사의 감정 쪽이 실제에 가깝다. 앞에서 소개한 두 글타래는 더욱 원색적이다. “조선인 같으니까 사죄 사죄 떠들지. 창피하다”(5월 23일)거나, “일본에 원폭을 떨어뜨린 건 실질 한국인이야. 진실을 알아야지”(10월 15일)라는 댓글 쪽이 훨씬 넷우익스러운 것이다. 비슷한 반응을 전하는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미치광이 한국인과 달리 우리 일본인은 사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반미를 혐한으로 대체·변환시켜나가는 논리 구조를 잘 대변하고 있다.⁸²

5. 나오며

역사 갈등의 쟁점화와 맞물리며 출현한 넷우익은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에 힘입어 보수 정치권과 결탁하고 정치 세력화까지 도모했으며, 반미·친미와 ‘위안부’ 등의 침예한 사안을 놓고서는 보수 정치권과의 갈등도 불사했다. 이런 넷우익의 발자취를 참작했을 때 우경화를 추동하는 메커니즘, 달리 말하면 우경화의 지형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점이 이 글의 마지막 과제다.

우경화의 1차 지형도는 2006년 출범한 1기 아베 내각에 이르러 거의 완

81 <http://hayabusa8.2ch.net/test/read.cgi/news/1463019735/150>(최종 검색일: 2016. 10. 17).

82 http://hamaguri-inspire.blogspot.kr/2016/05/blog-post_27.html(최종 검색일: 2016. 10. 17).

성 단계에 도달했다. 보수 정치권이라는 ‘지휘부’, 일본회의·산케이신문과 같은 보수 네트워크의 ‘본진’, 그리고 새역모 및 재생기구 등의 교과서우익 처럼 역사 갈등의 정치적·외교적 쟁점화를 짊어지는 ‘전위대’ 등의 3단계로 구성된 동심원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2년 12월의 2기 아베 수상의 재등장을 전후해서는 넷우익이 가세하면서 전위대의 외연 내지 저변이 크게 보강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언설은 1990년대 이전부터 여러 차원에서 존재해왔지만, 아베 수상이 주도하는 우경화는 최대 목표인 헌법 개정을 가시권 내에 둘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중의원과 참의원의 2/3 획득). 그 비결 중 하나는 한국·중국과의 역사 갈등에 편승하여 산발적이던 역사수정주의 그룹을 조직화하여 동심원의 폭과 층위를 다지고 다각화한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넷우익이 우경화 전선의 네 번째 동심원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새역모에서 재생기구로의 전환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대중적 파급력이 강점인 넷우익의 우군화는 여론 장악을 위해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지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넷우익의 아베 정권 지지 열기는 12·28합의의 후폭풍으로 인해 상당히 둔화된 데다 헤이트스피치를 서슴지 않던 오프라인 넷우익의 활동에는 법적 제약이 가해졌으며, 다모가미에서 사쿠라이로 이어지는 넷우익 자체의 정치화 움직임도 아베 지지보다는 독자 행보에 치중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⁸³ 게다가 넷우익의 세계에서 개헌이라는 전쟁터는 아직 실감도 긴장감도 높지 않은 듯 보인다.

넷우익 자체도 변화의 와중에 있다. 역사 갈등의 심화 및 우경화의 진전과 연계를 맺으며 존재감을 높여왔으나, 그 미래상을 놓고서는 재편 내지 쇠퇴의 진단이 자주 제기된다. 하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넷우익은 분명히 일본 내에서의 여론과 정치권의 상관관계를 탐지하는 시추공 같은 존재로

83 그런 측면에서 이승희(2014)가 「재일코리안 문제를 둘러싼 일본 우익 내부의 균열 양상-『사피오』(SAPIO)의 ‘재특회’(在特會)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2012년의 『SAPIO』와 재특회 간의 갈등은 대단히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지만, 관련 분석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남을 것이다. 그 점이 앞으로도 넷우익의 동향을 주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넷우익의 출현은 뉴미디어 시대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넷우익의 내적 단결력은 바로 자신들을 비판·부정하는 외부의 압박과 공격을 향해 발해지며, 재생산의 주요 에너지도 그런 현상의 반복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 점에 착안한다면 바람직한 대처법의 하나는 자정적인 내파(內破)일 것이다. 2008년의 한 블로그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⁸⁴ 자신도 넷우익이었다는 운영자는 넷우익은 원래 “미디어에 대해 준엄한 눈길을 보내며 정보의 왜곡이 발견되면 확실한 소스를 제시하여 비판하는 식의 쿨(cool)한 인물상”이었는데, 난징(南京) 사건을 물어도 “제대로 답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히스테릭한 댓글을 거듭하는 넷우익에게 완전히 실망”하게 되면서 “넷우익에 대한 동경과 같은 시선”이 사라졌다고 한다.⁸⁵ 그는 2008년 시작한 블로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84 <http://d.hatena.ne.jp/hagakurekakugo/20081119/p1>(최종 검색일: 2016. 10. 15).

85 한 재특회 탈퇴자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야스다 고이치·아마모토 이치로·나카가와 준이치로, 최석완·임명수 옮김, 『일본 넷우익의 모순』, 어문학사, 2015, 14쪽).